

1910年 以前 日式官舎의 移植에 관한 研究

安 聲 浩

((株)始反建築士事務所)

金 純 一

(釜山大學校 建築工學科 教授)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한국의 현대주거는 주문화의 공간적 변용과 지속을 거듭하면서 지금 우리들 앞에 서 있다. 한국주택의 근대화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도시주택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 외래문화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9세기 말 이후 약 70년간에 걸쳐 이식된 일본의 주문화와 1960년대 이후 이입된 서구의 주문화가 그것이다. 한국주택에 서구의 영향이 컸다는 것은 틀림없으나 일본의 영향도 빠뜨릴 수는 없다.

구한국 이래 한반도에 들어온 일본인의 수는 엄청난 것이었고 일제강점기간 중 그들이 건설한 일식주택도 막대한 양이었다.¹⁾ 일제강점기

간 중 일식주택은 한정된 지역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걸쳐 건설되었고 강점 후기에는 한국인 하급관리와 노동자를 위한 숙소로 건설되기도 하였다.²⁾ 한국인이 굴절된 형태로나마 외래주택을 이처럼 집단적으로 오랜 기간 경험한 예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소유였던 일식주택은 해방 이후 그대로 한국인의 주택이 되었다.³⁾ 한국근대주택을 이야기하면서 일식주택의 영향을 빼놓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이켜 생각해 볼 때 한국건축의 근대화가 일본을 통한 서구건축의 재이식에서 시작되었듯이 한국주택의 근대화도 일식주택을 통한 서구주택의 재이식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이식된 일식주택이 재래의 일본주택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본주택의 근대화과정을 보면 19세기말에 일본주택

1) 1921년 京城에 신축된 주택이 모두 1,495棟인데 이 중 日本人의 주택이 875棟으로 약 60%를 차지하며(東亞日報, 1922년 10월 25일자) 1933년 京城의 국적별 주택수를 보면 京城의 인구 382,491명 중 일본인이 106,782명으로 약 27.9%, 京城의 주택 수 총 70,599戶 중 일본인의 주택이 23,719戶로 조선인의 주택 46,012戶의 半을 넘는다. 조선인의 주택이 舊韓國 시절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日式住宅의 건설물량이 조선인 주택의 건설물량을 훨씬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京城日報社·每日新報社, 『朝鮮年鑑』, 1935年度版 京城府

欄과 孫禎睦, 『日帝強占期 都市社會相研究』, 一志社, 1996, 246-247쪽 참조

2) 官建築組織에 의해서 건설된 官舎와 強占 末期 전쟁수행력의 제고를 위해 건설된 營團住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3) 1948년도 한국정부의 귀속재산처분통계를 보면 일식주택 60,000건 이상이 적산가옥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남한의 경우만을 나타낸 것이니 한반도 전체의 양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財務部, 財政金融의 回顧, 1958, 168쪽 참조

은 서구주택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근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일식주택의 이식이 일본에서의 주택동향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렇게 일본에서 근대화된 주택이 한반도에도 이식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근대화된 일식주택의 이식이라는 점에서는 특히 관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근대화는 관주도를 특징으로 한다. 일본이 서구건축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공공건축을 통해서였고 서구주택의 모방도 관사를 통하여였다.⁴⁾ 和洋折衷式 혹은 속복도형 주택이라고 불리는 주택형식이 이 때 건설된 관사의 대표적인 형식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일본의 무사주택이 서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도시형 주택이었다.⁵⁾

본 연구는 한반도에 이식된 일식관사가 근대화된 일식주택의 이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그것이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인 건축기술자들에 의하여 일본인 관리를 위해 지어진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관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은 충분히 고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있었던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평가하는 것이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다. 일제강점기 하의 관사건축이 어떻게 성립되고 전개되어졌으며

그것의 평면특징이 어떠한가를 밝혀 한국 근대주거사 연구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한반도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에 의해서 일식주택의 이식과 변천과정을 나눈 것을 보면 大偶健男⁶⁾은 이입기(1910년~1925년), 연구기(1926년~1937년), 동화준비기(1938년 이후)로 나누고 있으며 笹慶一⁷⁾은 1905년 통감부의 설치에서 1916년 寺內총독의 퇴임까지를 제1기로, 1916년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까지를 제2기로, 그 이후를 제3기로 구분하고 있다. 淺川伯教⁸⁾는 합방 전을 조선가옥개조시대, 합방 후 10년을 일본식바라크시대, 1920년대 이후를 문화주택시대라고 보고 있다. 대체로 1920년대 중반까지는 관사에 의해서 주택경향이 주도되었으며 1920년~1925년경부터 근대화된 일식주택이 민간에서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공통된다.

따라서 일식주택 중 관사의 이식에 관해서는 192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가 주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10년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관사건축에 관하여 알아보려 한다. 1910년 이전의 민간 일식주택은 개항장과 거류지를 중심으로 건설된 점포겸용의 일식주택이 대부분이었으며⁹⁾ 일본에서 자재를 가지고 와서 전통적인 주택을 건설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한반도의 기후에 대한 연구도

4) 명치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새로 등장한 관리계층을 수용하기 위하여 소위 화양절충식의 관사를 대량 건설해 나가는데 일본주거의 근대화는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扇田新 외 9인, 『新建築學大系-7. 住居論』, 彰國社, 1987, 14쪽 참조

5) 속복도형 주택은 일본주거사에서는 中廊下形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일본에서 중남하형 주택의 성립과 전개에 관해서는 木村德國, 方法論的序章,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19, 1958. 7., 明治時代の住宅改良と中廊下形住宅樣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1, 1959. 5., 大正時代の住宅改良と居間中心形住宅樣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18, 1958. 5., 昭和初期の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樣式の展開と融合,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0, 1958. 12., 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樣式の史的位位置,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1, 1959. 5., '住宅洋風化と明治大邸宅', '明治時代の都市住宅', '大正から昭和へ'(太田博太郎 編 『住宅近代史』), 雄山閣, 1969.를 참조

6) 大偶健男, 朝鮮に於ける内地人住宅の變遷, 『朝鮮と建築』 제21집 제3호, 18-19쪽.

7) 笹慶一, 朝鮮に於ける住宅の變遷, 『朝鮮』, 1938. 2., 103-112쪽

8) 淺川伯教, 建築に對する側面觀, 『朝鮮と建築』, 第11輯 8號, 2-3쪽

9) 김영태, 한국개항기 외인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 140-144쪽과 大偶健男, 같은 글, 18쪽 참조

10) 이 시기의 일본인들은 모든 건축자재를 일본에서 반입하여 건설하였는데 그 원인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기후, 풍토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없는 점

없었고 대부분이 급속으로 건설되는 것이었으며 1910년 전이나 후나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¹¹⁾

관사에 주목해서 볼 때 통감부 설치 이후 이미 일제는 구한국정부의 관건축조직을 장악하여 칙령행정을 위한 기반시설로 각종 관아시설과 관사를 건설해 나가고 있었다.¹²⁾ 이것은 1910년 이전에 관사라는 형식의 일식주택이 한반도에 이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식관사의 최초 이식기라 할 수 있는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의 시기를 따로 떼어 일식관사의 이식과정과 평면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식관사의 이식배경과 계통

관사란 관청에서 지어 관리에게 빌려주는 주택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는 관리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막부시절 이래의 행정전통으로 보인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기왕의 막부에서 무사들에게 제공하였던 주택들을 환수하여 관사로서 재분할하는 한편 새로운 무사계급이라 할 수 있을 관리들에게 관사를 공급해 나간다.¹³⁾ 공급의 주체가 영주에서 근대적인 정부

로, 거주자가 무사에서 관리로 자리바꿈한 것이다.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한 명치정부가 주택근대화와 서구화를 이룩한 관사를 통하여 펼쳐나간 것은 당연하다. 일본주거사에서는 무사주택을 고급주택의 원류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관사가 근대의 무사주택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다.

1935년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청부업자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 년감을 보면¹⁴⁾ 그들의 공사경력을 밝혀놓은 것이 있는데, 이중 관사공사만을 따로 모아 발주처별로 정리하여 보면 철도관사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반 행정관사가 63건, 육군관사가 28건으로 이 셋을 합한 발주처의 비율이 전체의 90.16%에 달한다. 금액대비로는 철도관사가 38.06%, 행정관사가 23.07%, 육군관사가 22.71%로 역시 전체 발주액의 83.84%이다. 일제강점기 중 관사의 발주처는 철도계통, 일반행정계통, 육군계통의 셋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가 청부업자들의 기록에 의한 것이고 강점 후의 기록이 주이므로 1910년 이전의 계통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910년 이전의 발주처로 탁지부 건축소, 조선군 사령부, 철도감부 셋이 나타나는 것이나 강점 후의 계통에 비추어 볼 때 1910년 이전의 일식관사의 이식도 철도관사와 행정관사 그리고 육군관사의 세 계통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일단의 건축조직에 의해서 일식주택이 이식되는 것은 경인선 철도부설과 함께 라고 볼 수 있다. 철도부설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부설지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므로 이들의 수용이 철도부설을 위해서 우선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또 많은 종업원을 필요로 하는 철도경영의 특성상 시설물의 관리와 철도의 운용을 위해서도 항구적인 숙소의 필요성은 절실

2. 한반도의 교통기관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자재 운반이 용이하지 않은 점
 3. 건축재료의 개발이 미진한 점
 4. 외국인과의 교섭이 상당히 많은 점
- 笹慶一, 같은 글, 108쪽

- 11) 1910년대 민간의 일식주택은 주로 일본에서 건너온 주택업자들에 의해서 공급되었는데 한 밀천 잡아 일본으로 빨리 건너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급속으로 건설되었고 건축적 질도 조악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건너 온 미장기술자가 조선에서 집을 지을려면 가능한 적은 양으로 많은 면적을 바르지 못하면 안되었다고 하는 식이었다. 淺川伯教, 같은 글, 2쪽
- 12) 金泰中, 開港以後 總稅務司가 主管한 官營工事機構에 관한 研究, 釜山大 博士論文, 1994 참조
- 13) 明治維新 후 太政省은 幕府 소유의 토지건물을 정리하면서 官에 있는 자가 종래 官宅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종래 官宅의 拂下規則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작업과 함께 각 府廳舎의 창립비와 수선비에 관하여 국고 지출과 지방비 지출을 명시하면서 知事이하 官員居宅의 규모를 직급별로 정하고 있다. 明治工業史編纂委員會, 『明治工業史-建築篇』, 社團法人 工

學會, 1930, 40-45쪽

14) 朝鮮經濟日報社, 『昭和10年 朝鮮請負年鑑』, 1935. 77-478쪽에 걸쳐 당시 한국에 진출해 있던 168개 청부업자의 연혁과 공사경력을 소개하고 있다.

하다. 식민침략의 전초작업으로 한반도의 철도 부설을 도모하던 일본은 미국인 모스에게 넘어갔던 경인철도의 부설권을 백만달러에 다시 사들여 경인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철도부설작업에 착수하니 이 때가 1899년이다. 경인철도주식회사는 건축반을 운영하며 철도부설 책임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숙사를 철도선을 따라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한반도에서 일식관사의 최초이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철도관사와 함께 합방 전 한반도에 이식되는 일식관사는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육군의 관사이다. 1904년 한일의정서에 의해 일본군이 한반도 내에 주둔할 수 있도록 구한국정부가 용산과 평양, 의주 등지의 토지를 수용 제공함에 따라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이 시작된다. 이후 일제는 한반도 전역에 걸친 군대의 주둔과 무단통치기반의 확장을 위하여 꾸준히 토지의 매수와 수용에 노력하여 인천·마산·부산·공주·대구·강릉·광주·전주·진해·청진·나남·회령 등 전국각지로 군주둔지를 확장해 나간다. 여기에 주로 헌병분대와 관사를 건립해 나갔으니 이 목적이 그들이 내세운 일본인들의 보호보다는 군사력을 통한 한국인의 무단탄압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철도관사와 육군관사는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예산으로 자국민을 위해 건설한 관사들이다. 그러니 그것들이 일식주택으로 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합방 이

전에 이미 일제는 구한국정부의 예산으로 그들이 사용할 일식관사를 건설하고 있었다.

1904년 8월 22일 한일협약의 체결로 일본인 고문들이 구한국정부의 재정·외교고문 및 경찰 고문으로 부임하게 되니 일본인 관리의 한반도 진출은 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905년 11월 17일 보호조약의 체결 이후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된다. 통감부는 원래 한국의 외교사무를 관리한다는 핑계로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경무부·농상공부·총무부 등을 두어 후일 내정전체를 관장한 총독부와 다를 것이 없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의 일본인 관리들이 한반도로 부임하게 되니 이들을 위한 관사가 필요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 때 이들 일본인 관리를 위한 관사가 어떤 식으로 건설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한 관사가 건설되었다면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던 세관공사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¹⁶⁾

1907년 7월 24일의 한일신협약에 의해서 일제는 일본인의 구한국정부관리로의 임용권을 획득하고 궁내부·내부·농상공부·탁지부·법부·학부 등 내각의 차관과 경무국장·총세무사를 모두 일본인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구한국정부의 내정과 재정권을 장악하게 된 일제는 1906년 9월 설치된 탁지부 건축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일본인 관리들을 위한 관사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한다. 일제는 자국 관리에게 관사를 제공하여 우수인력의 유치를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¹⁷⁾

건축소의 설치 이후 1910년까지 집행한 공사

15) 小倉辰造, 鐵道官舎の 過去と現在, 『朝鮮と建築』 第6輯 5號, 1927, 2-11쪽

당시 경인철도주식회사는 법인의 형태이었으나 사실상 일본 정부의 출연에 의한 것이었고 일본정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었으므로 경인선간의 숙사를 관사라고 보아도 크게 흠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철도부설과 철도와 관계되는 숙사의 건설과 운영권이 경인철도주식회사에서 경부선 부설을 위해 설립된 경부철도주식회사로 흡수되고 다시 임시군용철도감부, 통감부 철도관리국을 거쳐 총독부 철도국으로 이양되는 것을 보아도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의 철도부설에 관심을 기울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철도관사는 경인선에 이어 경부선, 경의선의 부설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합방 전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건설된 일식관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6) 한일신협약 이전에도 구한국정부의 조직에는 보속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 관리들이 임용되어 있었다. 탁지부 건축소의 경우 1906년 설립 당시에 이미 일본인 보속으로 사무관 太田德太郎과 기사 國枝傳이 임명되어 있어 이들이 설계를 주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17) 그러나 건축소에서 건설한 관사만으로 급증하는 일본인 관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던 것까지는 않다. 건축소 직원들의 급여명세를 보면 國枝博의 경우 봉급 135원에 별도의 관사료가 25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韓國財政整理報告(第4回)』, 韓國政府財政顧問部, 1907, 372-375쪽 참조.

의 건수를 보면 일본인 관리들이 사용할 관사 및 제숙사가 가장 많고 세관설비가 그 다음이며 각지의 재판소 신영과 수선, 각지 경찰서 신영과 수선 각부 제청사 신영 및 수선, 재무 감독국 및 재무서 신축 수선, 창고와 감옥의 신영 및 수선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들이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이다.¹⁸⁾ 일제가 함방 이전부터 식민행정을 기정사실로 삼고 그들이 사용할 관사의 건설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철도관사와 육군관사 그리고 탁지부 건축소의 관사를 통하여 1910년 이전에 이미 일식관사는 한반도 전역에 건설되고 있었던 것이다.

3. 일식관사의 전개

3-1. 철도관사

철도관사는 철도부설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간이 숙소의 성격이 강하여 나가야형(長屋型)의 목조 단층주택이 대부분이었고 전통적인 일식주택이 그대로 들어와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많았다.¹⁹⁾ 그러나 그런 만큼 한반도의 기후에 대한 경험도 빨랐고 그 결과 전통적인 일식주택에 대한 개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함방 후 일식관사와 주택의 개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다.²⁰⁾

철도관사가 한반도의 기후에 대하여 개량되기 시작하는 것은 경부선 철도관사²¹⁾에서부터이다. 경부선 철도관사도 부설 초기는 아직 뚜렷한 건축방침이 없었고 한반도의 풍토와 기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여 목조일식주택이 계속

건설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남북양단에서 동시에 철도부설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일식주택의 구조와 설비로는 한반도 북부의 추위를 견디기 어려움을 알게 되자 점차 부산방면은 순일본식으로 하지만 북부지방의 관사는 벽을 두껍게 하고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방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일본인이 중부 이북지역의 관사에 온돌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부터이다.²²⁾ 처음에는 북부지방의 관사라 하더라도 일본식 다다미로 이루어진 방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본인들이 자국민을 위해 건설한 관사에 온돌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경인선 부설 당시 한옥을 관사로 사용하여 온돌의 효용을 경험한 것이 한일절충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또 하나 경부선 관사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 때부터 철도관사가 직급에 따라 규모와 의장이 삼등에서 팔등까지 구분되어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때 정해진 철도관사의 등급은 철도관사의 조직이 통감부와 총독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변화없이 유지되어졌다. 직급에 따른 관사의 공급규모는 <표 1>과 같다.

표 1. 경부선 철도관사의 직급별 규모

等級	建坪	職級	住宅樣式
3等官舎	79평	勅任官	일본식+洋式웅집실
	57평	奏任官	일본식
4等官舎	45평	奏任官	일본식
5等官舎	34평	奏任官	일본식
6等官舎	25평	判任官	일본식
	21평	判任官	일본식
7等官舎	20평	判任官/雇員	일본식
	16평	雇員/庸人	일본식
8等官舎	11.5평	雇員/庸人	일본식

<표 1>에서 3등관사를 보면 일본식 주택에 양식 웅집실이 병치되어 있는 소위 화양절충식

22) 같은 글, 3쪽

18) 『韓國財政施設概要』, 統監府, 1910. 8., 247-249쪽. 金純一, 慶運宮의 營建에 관한 研究, 동국대 박사논문, 1983. 72쪽에서 재인용

19) 小倉辰造, 鐵道官舎의 過去と現在, 『朝鮮と建築』. 第6輯 5號, 2-11쪽

20) 앞의 글에 의함

21) 일본이 경부선철도부설권을 획득한 것은 1898년이나 경부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철도부설에 착수한 것은 경인선 개통 후 경인철도주식회사를 흡수하여 경부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된 1901년이다.

의 주택임을 알 수 있다. 그 평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자료는 없어 알 수 없으나 책임관급이면 오늘날의 국장에 해당하는 직급이므로 격식을 갖춘 주택을 제공한 것일 것이다. 3등관사는 당시 일본에서 중산층 주거로 성립되고 있던 화양절충식 속복도형 주택일 가능성이 많다.

철도관사는 철도운영권이 경인철도주식회사에서 경부철도주식회사로 흡수되고 다시 臨時軍用鐵道監部, 통감부 철도관리국을 거쳐 총독부 철도국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꾸준히 건설되어졌으며 그 결과 오늘날 잔존하고 있는 일식관사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3-2. 육군관사

철도관사의 뒤를 이어 한반도에 이식되는 일식관사는 청일전쟁 이후 1904년 한일의정서에 의해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육군의 조선주차군 관사이다. 일제는 조선주차군의 병영과 관아건축을 위하여 1906년 5월 군경리부에 임시건축과를 설치하여 군병영지의 수용, 병영·관아 및 숙사의 건축 등 영구적인 시설과 관련된 건축업무를 담당케 한다. 1909년 임시건축과는 경영과에 합병되었다가 1910년 5월 개설되고 이후 1914년 『조선2개사단증설안』과 함께 폐쇄된다. 이 후 군관사의 건설업무는 조선군 사령부와 19·20 사단의 경리부로 각각 이관되어졌다.²³⁾

『朝鮮駐劄軍經理部臨時建築科處務細則』²⁴⁾을 보면 임시건축과는 庶務·計算·設計 및 工場의 4계로 나뉘어져 陸軍主計監인 경리부장 아래 陸軍二等主計正이 업무를 총괄하고 용산·평양·마산·나남·회령·부산·대구·원산·진해 등 각지에 출장소를 두고 여기에 陸軍1等主計에서 3等主計 혹은 陸軍技師를 파견하여 건축관계 업무를 추진해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朝鮮駐劄軍永久兵營官衙及宿所建築經過概要』에는 관사의 세부규정을 정한 『韓國駐劄軍宿舍設備要領』²⁵⁾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육군관사는 준사관 이상의 장교와 영외거주하는 하사관과 군속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두에게 관사가 제공되어지는 못하여 將官同相當官과 上長官 이하는 합동관사에 기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관사의 구조는 목조 단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외 모두 양식으로 하되 실내는 모두 다다미를 깔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관사의 각 실의 수와 면적을 계급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합방 전 일본육군관사의 계급별 실수 및 면적표

官等 種類	將官同 相當官	上長 官	士 官	准士 官	下 士	비 고
寢室(押入付)	1실 6.25평	1실 5평	1실 5평	1실	2인 1실	1. 현관, 복도, 변소 등의 설치, 개소, 면적은 숙사의 대소와 형상에 따라 便宜에 정한다.
居室(戶拂付)	1실 6.25평	1실 5평	1실 5평	4명	6명	
入口間 및 納戶		1개소 4명				
客室 또는 應接室	1실 7.5평	1동에 3실 각실 약3평	3실	1동에 3,4실		2. 上長官 이하 應接室의 실수 및 면적과 浴室, 洗面所, 當番室의 면적은 약 20인을 표준으로 하고 숙사의 大小 形狀에 따라 본 표에 따라 適宜 增減한다.
食堂	1실 5명	1동에 1실 1인당 약 1명	1실	1동에 1실		
娛樂室		1, 2실	1, 2실	1, 2실	1, 2실	3. 본 표 官等 중 相當軍屬을 포함한다.
洗面所		2인당 세면대 1		1동에 1개소		
庖廚所	1개소 6.25평	1개소		1개소		
浴室	1실 2.5명	1동에 1실		1동에 1실		
當番室	1실 3.75명	수용인원에 따라				
炊夫室	1실 3.75명					

『朝鮮駐劄軍永久兵營官衙及宿舍建築經過概要』에 수록되어 있는 육군관사의 평면을 보면 장성급의 관사는 양식을 원칙으로 하였고 上長官級 이하의 관사는 전통적인 일식주택이 건설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용산에 있던 조선

23) 『朝鮮駐劄軍永久兵營官衙及宿所建築經過概要』, 32-33쪽
24) 같은 책, 74-94쪽

25) 같은 책, 74-94쪽

군사령관 관사(그림 1)는 606평 규모의 양식 건물로서²⁶⁾ 위세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상당함을 볼 수 있다. 별도의 기관실이 있어 지중에 매설된 송기관을 통하여 각실의 방열기로 증기를 보내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대규모 연회를 위한 식당도 갖추고 있었다.²⁷⁾

용산에 있던 군참모장 관사(그림 2)는 104평의 규모로 양식의 객실 및 응접실로 된 접객부와 일본식의 거주부분으로 구성된 화양절충식 목조단층주택이다. 부분적으로 주거부분의 옆에 붙은 부엌과 욕실, 女中室²⁸⁾ 부분에 속복도가 일부 나타나나 아직 거주공간은 전형적인 일본의 '田'자형의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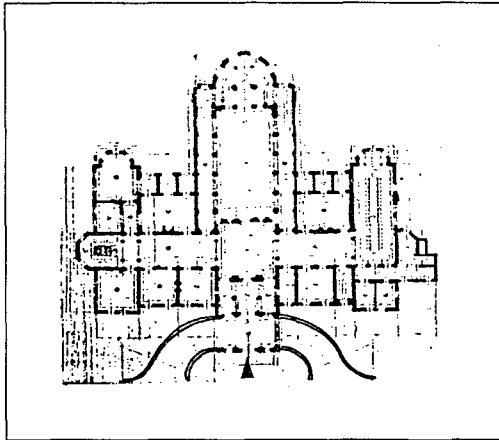


그림 1. 조선군사령관 관사 평면도²⁹⁾

군참모장 관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거부분의 위쪽에 있는 운동방의 등장이다. 방의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배치로 보아 본격적인 주거공간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병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26) 같은 책, 92쪽

27) 군사령관 관사를 1909년 3월 陸普 第 914號에 의거 1912년 5월에 朝鮮總督府로 인계하고 총독부에서 건설한 총독관저를 군사령관 관사로 수령 교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령관 관사는 경복궁 뒤에 總督官邸가 신축되기까지 總督官邸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책, 93쪽

28) 하녀실 또는 식모방이다.

29) 같은 책, 제3장의 圖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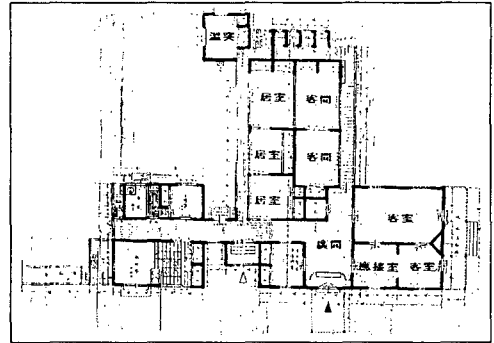


그림 2. 군참모장 관사 평면도³⁰⁾

사단장과 여단장의 관사에서는 주택의 중앙에 속복도가 있는 속복도형이 등장하는 것이 보인다. <그림 3>은 용산에 있던 사단장 관사인데 1908년 5월 착공되어 그 해 10월 준공된 건평 51평의 목조 2층 건물이다. <그림 4>의 여단장관사는 평양에 있던 포병여단장의 관사인데 목조단층건물이다. 건평은 68평, 1908년 9월 착공되어 같은 해 12월 준공되었다. 사단장과 여단장 관사는 모두 목조주택으로 외관을 구성된 일식주택인 것은 『朝鮮駐劄軍永久兵營官衙及宿所建築經過概要』에 수록되어 있는 '韓國駐劄軍宿舎設備要領'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군사령관관사나 군참모장 관사와는 달리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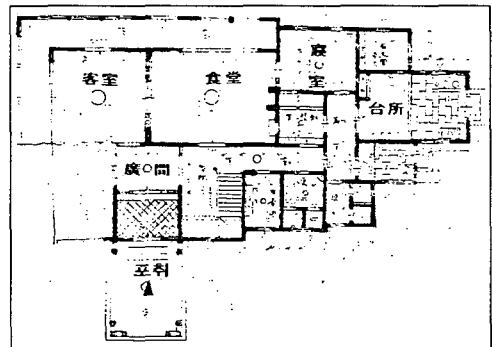


그림 3. 용산 사단장 관사 평면도³¹⁾

30) 같은 책, 제3장의 圖版

31) 같은 책, 제3장의 圖版

에서는 일본주택 특유의 '田'자형의 방 구성이 사라지고 대신 주택의 중앙에 속복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단장 관사와 여단장 관사의 규모도 각각 51평과 68평으로서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속복도형의 규모이다. 사단장 관사나 여단장 관사에서 양식의 식당이 독립되어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일선 지휘관으로서의 연회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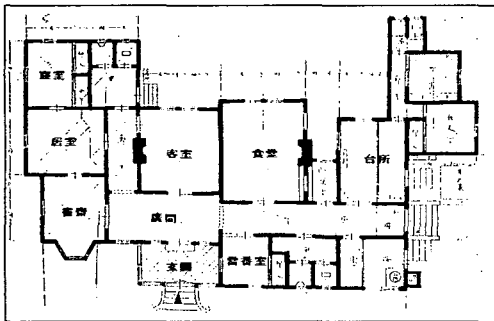


그림 4. 평양 포병여단장 관사 평면도³²⁾

장성급 관사에서 속복도형의 등장과는 달리 영관급 이하인 上長官(그림 5)·士官·准士官·判任官 관사는 모두 '田'자형의 방 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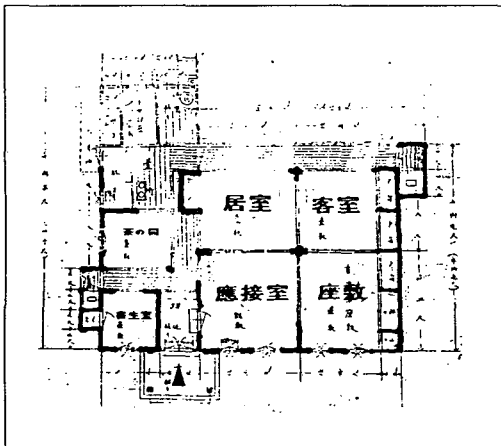


그림 5. 上長官 관사 평면도³³⁾

32) 같은 책, 제3장 2절의 圖版
33) 같은 책, 제3장 1절의 圖版

뒷마루가 있는 전형적인 일식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실내도 모두 다다미이고 온돌의 도입도 볼 수 없다.

3-3. 탁지부 건축소 시행의 관사

1906년 통감부의 설치 이후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화에는 장기적 구상아래 각종 행정조직의 개혁과 증설에 임하면서 관아건축의 신축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세관공사부나 등대국과 별도로 전문적인 건축·토목공사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1906년 9월 28일 칙령 제 55호로 탁지부 건축소를 설치한다. 건축소 이외에도 당시 구한국정부의 관건축조직으로는 1907년 12월 세관공사부의 공무국이 개편된 임시세관공사부가 탁지부대신의 관장 하에 있었다.³⁴⁾ 1907년 12월부터 1908년 8월까지 탁지부 내에 건축소와 임시세관공사부가 병존하다가 설립목적이 서로 유사하고 같은 탁지부대신의 관장에 속하는 데다 겸직 직원도 많아 합병하니 1908년 8월 14일 칙령 제59호에 의하여 구한국정부 최대의 건축조직인 건축소가 성립되는 것이다.

건축소가 1906년 정식 업무를 시작한 이래 1910년 합방과 더불어 그 업무를 총독부 회계국 영선과에 인계할 때까지 건축소에서 시행한 관사를 『建築所事業概要(第1次)』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3>³⁵⁾과 같다.

<표 3>을 보면 건축소가 설립되는 해인 1906년 이전에도 건축소에서 관사의 수선과 증축 등의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명을 보면 鍾岷巨智部博士官舍修繕工事, 會洞鈴木書記官官舍增築工事, 會洞舍宅模樣替修繕工

34) 臨時稅關工事部는 稅關工事部の 工務局을 1907년 第2次 韓日新協約에 의거 諸官制 정비시, 臨時稅關工事部로 개칭하여 度支部 大臣의 관장 하에 둔 기관을 일컫는다. 舊韓國官報, 第3952號, 隆熙元年(1907.12.18), 勅令 48號

35) 『建築所事業概要(第1次)』, 朝鮮建築所, 1909, 108-112쪽에서 정리

표 3. 탁지부건축소시행관사의 연도별 집계

년 도	공사 건수	공사 금액	비 고
1905	3	4,906,500	
1906	8	50,559,465	
1907	19	248,494,387	
1908	21	154,402,101	
1909	30	79,150,630	
계	81	537,513,083	

事와 같다. 3건 모두 일본인이 사용하던 기존 관사의 수선이나 증축이다. 따라서 건축소 이전에도 일본인 관리에게 이미 관사가 제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인 임직원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³⁶⁾ 이 당시는 아직 세관공사부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때이므로 당시 정부의 재정결재권을 쥐고 있던 탁지부고문 目賀田種太郎이 정부재정을 전용하고 건축소의 사업으로 나중에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과 1907년의 관사공사는 주로 탁지부와 탁지부를 관장하고 있던 재정고문부의 관사에 주력한다. 자신들이 사용할 관사를 우선 건설한 후 건축소는 1908년 총리대신관저 신축공사를 필두로 1908년과 1909년에 걸쳐 내각의 각 차관관사와 각지의 경부관사를 건설해 나간다.³⁷⁾ 건축소의 일본인 기술자들이 일본인 차관을 위해 건설한 이들 관사가 일식주택이었음은 물론이다.

『建築所事業概要(第1次)』에는 건축소에서 1909년 6월까지 시행한 관사 중 대표적인 것 몇 개의 평면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중심으로 탁지부 건축소에서 시행한 관사의 평면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京城大審院長 및 控訴院長官舎

和洋折衷式의 관사이다. 京城大審院長官舎의 응접실과 控室은 양식의 벽돌조 단층으로 16.4평이고 거주부는 일식목조 2층으로 연면적 52.8평 이다. 벽돌조 양실은 벽돌 1장 반 두께로 벽을 쌓고 내부는 大壁³⁸⁾으로 하였다. 거주부분인 일식 2층 건물은 외벽에 비늘판을 붙이고 대나무를 덧대어 비바람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였다.

현관의 오른쪽에 양식의 응접실이 있고 왼쪽으로 속복도를 중심으로 거주부의 실들이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화양절충식 속복도형의 주택이다. 거주부의 일부에 돌출하여 다다미 6장 크기의 온돌방을 두고 있음이 보이는데 바닥높이를 다른 부분보다 약 15cm 낮게 하고 내부는 大壁으로 하여 천정과 벽 모두 벽지를 발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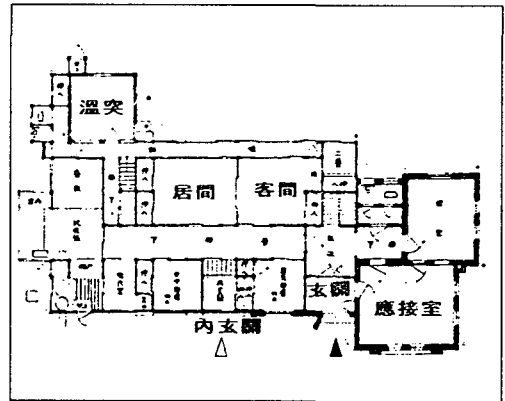


그림 6. 경성 大審院長 관사 평면도³⁹⁾

大審院長官舎 외에도 檢事總長, 京城控訴院長, 同 檢事長, 同 高等官 관사 2동 모두 6동을 함께 건설하였는데 모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평면형은 大審院長官舎와 유사하였다. 『建築所事業概要(第1次)』의 자료를 보면 법부의 관사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시기가 1909년이므로

36) 『建築所事業概要(第1次)』 222쪽에는 補屬事務官 太田徳太郎, 補屬技師 國枝博이 초창기에 근무했다고 되어 있다. 金純一, 같은 논문 70쪽에서 재인용

37) 『建築所事業概要(第1次)』, 108-112쪽과 『韓國財政施設要綱』, 統監府, 1910. 8., 247-249쪽 참조.

38) 오오카베, 목조건물에서 기둥의 바깥에 판장 따위로 마감하여 기둥이 드러나지 않게 한 벽을 말한다. 한국건축의 平壁과 같으며 기둥이 드러나게 하는 眞壁·心壁과 대칭된다.

39) 『建築所事業概要(第1次)』, 82쪽

로 大審院長官舎와 控訴院長官舎의 건설시기를 1909년으로 보아도 무리 없을 것이다.

2) 學部次官官舎

학부차관관사 역시 소위 화양절층식이다. 속복도를 중심으로 거주부와 종속부가 구성되고 양식의 서재와 응접실이 접객공간을 이룬다. 접객공간에 온돌방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접객공간인 양관은 연면적 30.4평으로 벽돌조 단층이며 벽돌 한장 반 두께이다. 외부와 천장은 모두 옷칠을 하고 지붕은 일본식 기와를 얹었다. 창은 이중유리창이고 베란다는 5평이며 나무에는 페인트를 발랐다. 거주부분인 일식주택은 64.8평으로 1층 46.05평이고 2층이 18.75평이다. 1908년에 건설되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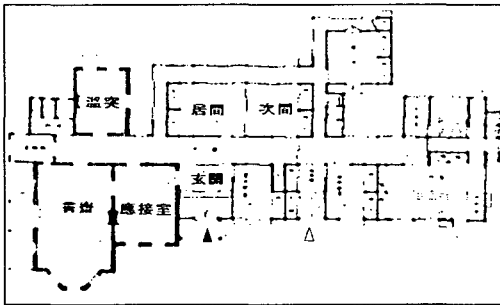


그림 7. 학부차관 관사 평면도40)

3) 内部 地方局長 官舎

京城 大和町에 건설된 화양절층식의 단층건물이다. 정면의 응접실과 控室은 벽돌조로 18.72평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일본식 주택으로 55.82평인데 다다미 4장 크기의 온돌방이 있다. 내벽은 眞壁이고 외벽에는 비늘판을 붙였다.

현관 좌우에 控室과 書生室41)이 있고 廣間(홀)을 통해 양식의 응접실에 이르는데 양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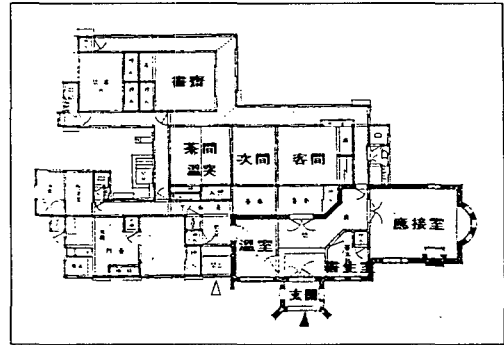


그림 8. 내부 지방국장 관사 평면도42)

분과 통해 양식의 응접실에 이르는데 양관부분과 일식주택 부분은 중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일식주택 부분에 부분적인 속복도의 도입이 보인다.

4) 度支部 司稅局長 官舎

신축건물과 조선식 건물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신축에 속하는 부분은 목조단층으로 67.49평인데 이 중 양관부분이 39.58평 일식주택이 27.91평인 화양절층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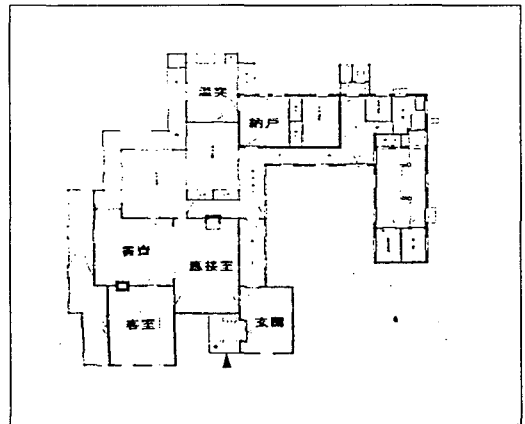


그림 9. 탁지부 사세국장 관사 평면도43)

40) 같은 책, 84쪽

41) 쇼세이시즈(書生室) : 書生이란 學齡期의 靑壯年으로 저택에 기거하면서 주인의 일이나 손님접대 따위를 돕는 이를 말하는데 書生室은 書生이 기거하는 방으로서 현관과 인접하여 오모테(表)와 우라(裏) 사이에 위치한다.

42) 같은 책, 86쪽

43) 같은 책, 88쪽

양관은 맞배지붕에 기와를 잇고 정두리벽은 돌을 쌓았다. 창은 이중창으로 하고 베란다에 인조석 물갈기를 하고 뒷마루에 모두 유리를 끼운 판문을 달았다. 방 하나에 온돌을 들이고 실내는 한일절충구조가 특징이다. 1908년 건설되었다.

5) 奏任官舎

주임관사 중 갑호는 서양식 이층 벽돌조 주택이다. 실리를 중시해 헛된 장식을 멀리하고 겨울철의 방한에 주의하였다 한다. 러시아식 페치카를 설치하였고 연면적은 27.27평이다. 소위 방갈로 풍의 양식 건물로 1910년을 전후하여 유행하였던 양식 관사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아르누보 풍의 외관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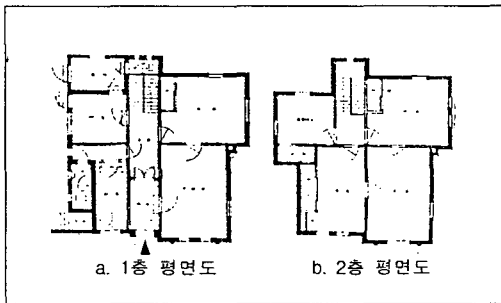


그림 10. 주임갑호관사의 평면도⁴⁴⁾

갑호관사 이외의 주임관사는 일식목조 2층 건물이다. 1층이 20.5평 2층이 9평으로 연면적 29.5평이다. 다다미 2장 크기의 현관을 통해 응접실에 접하고 거간과 차노마는 그 뒤에 있고 현관에서 부엌에 이르는 복도의 양쪽에 書生室, 女中室 및 목욕탕을 만들고 書生室 앞쪽에 이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붙어 있다고 하니 속복도형의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층은 2개의 방이 있는데 객간과 차노마(茶の間)⁴⁵⁾이다.

44) 같은 책, 90쪽

45) 일본주택에서 식사실이나 가족실로 사용되는 방. 가족의 침실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하층주택이 대부분이다.

4. 일식관사의 평면특징

4-1. 관사의 평면유형

1910년 이전 한반도에 이식된 일식관사의 평면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면 첫째 전통적인 일식주택이 그대로 이식된 것, 둘째 전통적인 일식주택에 양식의 응접실이 병치된 화양절충식, 셋째 일식주택에 양식의 응접실과 속복도를 도입한 속복도형, 넷째 탁지부 사세국장관사와 같이 조선식 주택을 변경한 한일절충식, 다섯째 군사령관 관사나 건축소의 주임갑호관사와 같이 순수한 양식, 여섯째 장옥형의 공동숙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속복도형은 다시 온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철도관사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평면을 확인할 수 없어 평면유형을 나누기가 어려우나 철도관사의 대부분은 장옥형의 목조일식주택이 건설된 것은 확실하다. <표 1>에서 나타난 철도관사의 등급별 규모를 보면 주임관의 관사가 34평에서 57평에 이르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의 전형적인 속복도형 주택의 규모이다. 1900년대 일본에서 속복도형이 중산층의 단독주택양식으로 정립되어가던 시기였으므로 주임관사가 속복도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판임관사는 규모로 보아 순수한 일식주택이었거나 2호연립의 주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관사는 장성급의 관사는 양식으로 上長官級 이하는 전통적인 일식주택으로 건설된 것이 확인된다. 군사령관관사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대표하는 관사인 관계로 위세를 과시하고 의전과 영빈기능을 위하여 순수한 양식의 건물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군참모장에서 하사관 관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전통적인 일식주택이다. 일선부대의 지휘관인 사단장과 여단장관사에 속복도형의 도입이 주목되는데 온돌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 당시 육군관사의 건설방침이 실 내외를 양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국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대의 성격상 온돌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

표 4. 1910年 以前에 移植된 日式館舎의 平面類型

區 分		鐵 道 官 舎	陸 軍 官 舎	建 築 所 官 舎
傳統 日式 住宅		中部 以南의 鐵道官舎	上長官官舎, 士官官舎, 准士官官舎, 判任官官舎	
和洋折衷式		3等官舎	軍參謀長官舎	內部地方局長官舎
속複道型	和洋折衷式	奏任官舎(?)	師團長官舎, 旅團長官舎	奏任官舎
	韓日折衷式			大審院長官舎, 控訴院長官舎, 檢事長官舎, 高等官官舎, 學部次官官舎
韓日折衷式		北部地方의 鐵道官舎		度支部司稅局長官舎
洋 式			軍司令官官舎	奏任甲號官舎
長 屋 型		대부분의 僱傭人 鐵道官舎	將校合同宿舎, 下士官宿舎	判任官舎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탁지부 건축소에서 시행한 관사들은 보다 근대적인 경향을 뚜렷이 드러낸다. 탁지부 건축소 관사의 경우 2호연립의 판입관 관사를 제외하면 속복도형의 관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입갑호관사와 같은 순수한 아르누보 풍의 양식, 탁지부 사세국장관사와 같은 한일절충식 관사도 보인다.

4-2. 속복도형 주택양식의 이식

1910년 이전 한반도에 이식된 일식관사의 평면유형 중 주목되는 것은 속복도형 주택 평면의 등장이다.

속복도형이란 일본주택의 근대화과정에서 1910년을 전후하여 성립된 화양절충식 주택을 일컫는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유형은 주택의 가운데에 복도를 도입하여 동선을 처리하고 속복도의 주위에 실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일본주택에서 뒷마루(緣側) 이외에 통로로서의 복도를 갖는 것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도시주택은 도시화로 인하여 좁아진 대지조건에 대응해야만 하였다. 새로이 등장한 붐급생활자들에게는 주거에 대한 투자비도 문제였다. 가능한 한 평면형을 집중화하는 것이 요구되었고 집중화된 평면에

서 동선을 해결하려면 속복도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방이 '田'자형으로 모여 있고 그 주위를 뒷마루가 둘러싸고 있던 이전의 전통적인 일식주택과 달리 속복도를 사용해 방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에서 도시단독주택의 전형으로 속복도형 주택이 등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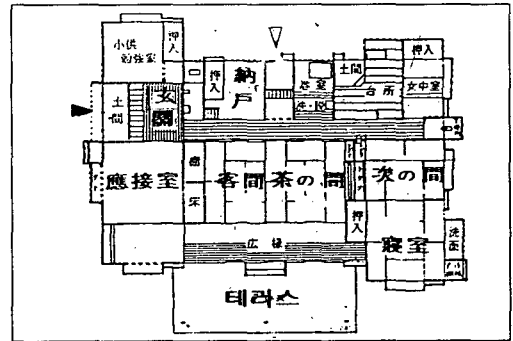


그림 11.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예

이러한 속복도형 일식주택들은 극히 유사한 평면상의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첫째, 평면형 전체는 동서로 긴 사각형으로 콤팩트하게 조합되고, 속복도가 동서로 관통해 한쪽 끝이 현관이 된다.

둘째, 속복도의 남쪽은 거주부로서 현관 홀에 인접해 양식의 응접실이 있고 그 옆에 자시

끼의 의장(자시끼가지리, 座敷飾)을 특징으로 하는 다다미방이 놓인다. 다다미방은 보통 8장~10장 정도 규모이고 토코(床)⁴⁶⁾를 중심으로 토코와끼(床脇)⁴⁷⁾와 후쇼인(付書院)⁴⁸⁾으로 구성된다. 남쪽에는 뿔마루가 있어 남쪽 정원과 연결된다.

셋째, 속복도의 북쪽은 가정부실, 부엌, 목욕탕, 가족용의 현관 등 부대부분이 놓여진다.

이러한 속복도형은 주택의 규모와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방의 구성과 위치까지를 포함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중산층 도시주택의 전형으로 계속된다.⁴⁹⁾

속복도형 일식주택은 이렇듯 일본주택이 서구주택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도시중산층의 단독주택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일식주택과는 달리 가족중심의 근대적인 주의식과 합리적인 평면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속복도형 일식주택은 탁지부 건축소에 의한 관사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1910년 이전에 이식되는 것이 확인된다. 탁지부 건축소 관사 중 대심원장관사와 학부차관관사는 현관을 중심으로 양식의 응접실과 일식주택으로 나뉘고 다시 일식주택은 속복도를 중심으로 거주부와 종속부가 나뉘는 소위 和洋折衷式 속복도형의 전형적인 평면이다. 대심원장관사의 경우 양식응접실의 외관이 아르누보양식을 띠고 있어 당시 일본건축계의 유행을 알 수 있다. 이들보다 관직이 떨어지는 내부지방국장관사는 아직 속복도형으로 진화되지 못한 화양절충의

평면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관과 양식의 응접실이 부가되어 있는 것은 속복도형과 같으나 평면의 집적성이 떨어지고 거주부분이 엔가와로 연결되어 아직 완전한 속복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임관관사는 순수한 일본식 목조 2층 주택이긴 하나 현관을 통하여 응접실에 접한 居間과 茶間に 가게하고 그 뒤쪽에 현관에서 부엌에 이르는 복도가 있어 서생실과 여중실, 목욕실 등을 복도 뒤쪽에 두었다 하니 이것 역시 속복도형 주택임이 확실하다.

당시 일본에서도 아직 민간주택에서는 속복도형 주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할 때⁵⁰⁾ 건축소의 관사에서 속복도형 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관사가 주택경향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건축소 관사의 경우 단지 일본에서 성립되고 있던 속복도형 주택을 이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일절충의 노력이 보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속복도형 탁지부 관사의 대부분에 비록 방 하나에 그치기는 하지만 온돌이 도입되고 있음이 그러하며 특히 탁지부 사세국장 관사를 보면 조선식 주택과 일식주택을 절충한 한일절충형의 주택양식이 보인다. 일본인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던 건축소에서 일본인 관리를 위해 건설한 관사에 온돌을 도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때의 관사가 단순히 일식주택의 이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일절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온돌의 도입

1910년 이전 한반도에 건설된 민간의 일식주택은 일본집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었다. '田'자형의 전통적인 평면에다 목재를 일본

46) 자시끼에 있는 장식단으로 토코에 가까운 자리가 上席이다.

47) 토코노마 옆의 세간 등을 장식한 부분을 말하여 텐부꾸로(天袋:받침 위나 찌까이다나 위에 들이는 작은 벽장), 지부꾸로(地袋:찌까이다나 아래쪽에 있는 작은 벽장), 타나(棚:선반)에 의해 구성된다. 武井豊治, 『古建築辭典』, 理工學社, 1994, 181쪽

48) 불박이식의 책상으로 엔가와를 향해서 창문이 있고 위치와 형식에 따라 엔가와 쪽으로 돌출되지 않는 창형식을 히라쇼인(平書院), 토코와 직각방향으로 배치되는 형식을 후쇼인(付書院)이라 한다.

49) 일본에서 속복도형의 성립과 전개에 관하여는 木村徳國, 앞의 논문 참조

50) 일본에서 속복도형이 중산층의 도시단독주택양식으로 확립되는 것은 1915년에 개최된 일본 최초의 주택경기설계와 1917년의 주택경기설계에서 속복도형이 입선안을 독점한 사건 이후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木村徳國, 大正から昭和へ, 125쪽

에서 제제한 것을 가져와 쓴다든지 외벽이 下目板張⁵¹⁾이고 창은 홑창에다 박공에는 깔러리가 끼워져 있는 등 한반도의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환기가 좋은 집⁵²⁾이었다.

한반도의 남부는 이런 전통적인 일본주택의 설비로도 지낼 만한 것이었으나 중부 이북지방의 겨울을 지내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것도 문제였지만 기초가 얇고 동결선 심도가 고려되지 않아 겨울에는 문이 열리지 않아 깎아서 사용하고 해빙기가 되면 다시 헐렁하게 되어 나무받침을 하여 사용한다던가 기와가 얼어터지는 등 관사에도 매년 주택수리를 위한 경비가 필요할 정도였다.⁵³⁾

전통적인 일본식 주택으로서의 한반도의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방한설비의 보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 역시 관건축조직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그 선구는 철도관사이었다. 이들은 우선 중부이북 지방 특히 북부지방의 관사를 건설할 때에는 유리창 내부에 덧문을 달아 이중창으로 하고 엔가와와 출입구에 유리문을 달아 주택의 기밀성을 높인다. 일식주택의 바닥 아래에 있는 환기공을 개폐 가능하게 하고 벽도 전통적인 일식주택보다 두껍게 한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동결심도에 따라 기초의 깊이를 결정하고 마루 아래의 환기구멍을 없애고 벽돌을 이중으로 쌓거나 벽돌조 내부에 나무판을 붙이는 등 방한성능을 높이는 방법들이 속속 나오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하려는 일식주택의 변화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역시 온돌의 도입이다.

일식주택에 온돌을 도입하는 시도는 경부선 철도관사에서부터이다. 경인선 철도부설 당시 한옥을 일부 숙소로 사용하고 나서 온돌의 효용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경부선 철도관사 중 중부 이북에 건설되는 관사에 온돌을 도입하게 된다.⁵⁴⁾ 아직 이 때는 북부지역의 관사라 하더라도

다다미방이 대부분이었고 온돌은 1실이나 2실 정도에 그쳤다.

육군관사에서 온돌의 도입은 철도관사보다 못한 감이 있다. 관사를 양식으로 건설한다는 건설방침과 국수적이지 않을 수 없는 군대의 성격상 그랬을 것이다. 고급관사는 양식으로 중·하급 관사는 전통적인 일식주택의 건설로 일관하다 1916년 이후 점차 육군관사도 서울 부근 지방은 북쪽 방 중 하나에 온돌을 들이고 북부 국경지역은 온돌을 2실정도 들이는 것이 보통이 된다.

그러나 철도관사에서 온돌이 수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하급관사나 숙사에 치중된 느낌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철도관사는 나가야형의 하급노무자의 숙소건설에 치중하였고 육군의 고급장교 관사를 보면 양식주택이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일식주택이 대부분이다. 혹 온돌이 놓이더라도 군참모장 관사처럼 일식주택에 덧붙여진 모습을 보여준다.

고급 관사에 온돌이 도입되는 것은 탁지부 건축소가 시행한 관사에 의해서이다. 탁지부 건축소의 관사를 보면 관동에 관계없이 온돌이 1실 이상 도입된다. 대심원장이라하면 요즈음으로 치면 대법원장일테데 건축소에서 대심원장 관사를 건설하면서 한국인 대심원장이 거주할 것을 예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심원장 정도면 최고의 지식인계층이고 자국의 문화에 대한 긍지도 상당하였을 텐데 대심원장의 관사에 온돌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조선주택의 장점을 받아들여려는 노력이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관사가 일찍부터 온돌을 도입하였던 것에 비하여 민간의 온돌 도입은 1920년대까지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 12월 30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겨울이 되면 일본인들이 온돌이 있는 조선식 집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 이사를 해 일본집 거리가 공가화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아직 민간에서는 온돌이 없는 전통적인 방식의 일식주택을 건설하고

51) 가로로 덧댄 비늘판 벽 가감을 말한다.

52) 大隅健三, 朝鮮に於ける内地人住宅の變遷, 『朝鮮と建築』, 第21輯 3號, 18쪽

53) 같은 글

54) 小倉辰造, 같은 글, 3쪽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거주경험이 축적되고 온돌의 효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민간의 일본인 주택에서도 온돌이 놓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된다. 1930년대 말이 되면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일본식 주택에 온돌을 적어도 1실은 들이는 것이 당연해졌다고 한다.⁵⁵⁾ 주택의 다른 구조도 한반도의 기후에 동화해 이중창을 설치하고 내밀이 창도 안팎으로 가구를 깊이 넣는 것이 적어지고 마루 밑의 환기공도 겨울에는 덮개를 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고 한다.⁵⁶⁾

속복도형 일식주택은 일본주택이 서구주택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주거유형이었다. 일본에서의 성립과 함께 한반도에 이식된 속복도형 주택은 한반도에서 다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온돌의 도입과 한반도의 기후에 의한 변화이다. 속복도형 일식주택이 다시 조선주택에서 영향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온돌을 들이고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한 주택은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주택일 수밖에 없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속복도형 일식주택이 한반도에 이식된 후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하고 온돌을 수용하여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주거유형으로 변하는 것이다. 속복도형 관사는 전통적인 일식주택이라고 보다는 한양일절충식 주택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근대주거사를 연구하는 데 일식주택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일제강점기 일식주택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일식관사의 최초 이식기에 해당하는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의 기간을 중심으로 일식관사의 이식계통과 평면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방 전부터 일식 관사는 한반도 식민 경영의 기반시설로서 이미 상당한 물량이 건설되고 있었고 그 출발은 1899년 경인선 철도부설을 위해 건설된 철도관사에서부터이다. 이후 일식관사는 계속되어진 경부·경의선의 철도부설에 따른 철도관사와 1904년 이후 조선주차군 경리부 임시건축과에 의한 육군관사 그리고 일본인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던 구한국정부의 탁지부 건축소에서 건설한 행정관사의 세 계통으로 한반도에 이식되어졌다.

둘째, 철도관사는 초기에는 간단한 구조의 전통적인 일식주택의 형태이었으나 경부선 철도관사 이후 온돌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한일절충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이러한 온돌의 도입은 그 후 탁지부 건축소의 고급 관사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일본인들은 온돌의 효용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주택에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건축조직에서 관사에 온돌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기후에 대응하는 한일절충의 노력을 선도적으로 보이고 있음은 민간주택에서 온돌이 1920년대 이후에야 도입되어지는 것과 비교해볼 때 관사가 한일절충의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관사가 주택동향을 주도하였던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일제강점기 일식주택의 절충적 경향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셋째, 육군관사는 장성급은 양식으로 영관급 이하의 전통적인 일식관사가 건설되었다. 온돌의 도입은 군참모장 관사에서 나타날 뿐이고 사단장과 여단장 관사에 속복도형의 평면특징이 나타난다.

넷째, 육군관사와 탁지부 건축소의 관사를 통하여 당시 일본에서 등장하고 있던 도시형 주택인 화양절충식의 속복도형 주택이 이식되었음이 확인된다. 하급관리의 관사는 일본전래의 주택이 그대로 이식되어졌지만 고급관사는 화양절충식 속복도형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속복도형 일식주택은 일본에서 1880년대 이후 성립된 도시형 중류주택을 말하는데 그것

55) 大隅健三, 같은 글, 18쪽

56) 같은 글, 19쪽

은 전통적인 일식주택이 도시화와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근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주택이었다. 속복도형 관사의 이입은 탁지부 건축소에 의해서 주도되는데 이들 속복도형 관사는 한반도에 이식된 후 온돌을 도입하는 등 다시 한양일절층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섯째, 민간부분의 주택동향이 전통적인 일식주택의 건설에 그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관사를 통하여 속복도형 주택이 이식되는 것은 관사가 일본의 근대화된 주택이 한반도에 이식되는 주요한 통로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속복도형 일식주택이 서구화된 도시형 주택으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면 한반도에 서구화된 주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서양인들에 의한 직접경로를 통해서라기보다 일본인들에 의한 속복도형 관사의 건설이라는 간접경로를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식관사를 통하여 일본에서 근대화된 주거유형인 속복도형의 주택이 이식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일식주택의 이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1905년을 일제강점기의 주거사적 시기를 구분하는 경계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탁지부 건축소의 속복도형 관사에서 볼 수 있는 집중화된 평면, 현관의 도입, 속복도의 도입, 양식 응접실의 부가, 속복도의 앞뒤로 거주부분과 종속부분을 나누어 배치하는 칸잡이법 등은 1930년대 이후 한국주택에도 등장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 요소는 이전의 한국주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소들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건축계가 관건축조직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일제강점기 한국사회에 미친 일본 문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속복도형의 일식관사가 가지고 있는 평면 요소가 한국주택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 계속 연구해 볼만하다.

參 考 文 獻

1. 建築所事業概要(第1次)』, 朝鮮建築所, 1909
2. 舊韓國『官報』, 亞細亞文化史
3. 『舊韓國財務狀況』, 朝鮮總督府, 1910
4. 『昭和10年 朝鮮請負年鑑』, 朝鮮經濟日報社, 1935
5. 『朝鮮』, 朝鮮總督府
6. 『朝鮮と建築』, 朝鮮建築會
7. 『朝鮮年鑑』, 京城日報社・每日新報社, 1934~1944
8. 『朝鮮駐劄軍永久兵營官衙及宿所建築經過概要』, 朝鮮駐劄軍經理部, 1914
9. 『朝鮮鐵道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1929
10. 『韓國財政施設要綱』, 度支部, 1910
11. 『韓國財政整理報告』1回~5回, 韓國政府財政顧問部, 1905~1907
12. 姜萬吉, 『고쳐 쓴 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94
13. Peter Duus(金容德 譯), 『日本近代史』, 知識産業社, 1983
14. 孫禎睦, 『日帝強占期 都市社會相研究』, 一志社, 1996
15. 尹一柱, 『韓國・洋式建築 80年史』, 治庭文化史, 1966
16. 鐵道廳, 『韓國鐵道史』, 1977
17. 金純一, 慶運宮의 營建에 관한 研究, 東國大 博論, 1983
18. 金泰永, 韓國開港期 外人館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大 博論, 1990
19. 金泰中, 開港以後 總稅務司가 主管한 官營工事機構에 관한 研究, 釜山大 博論, 1994
20. 尹仁石, 韓國における近代建築の及び發展過程に關する研究, 東京大 博論, 1990
21. 李賢姬, 韓國에 있는 日式住居의 變遷과 그 影響에 관한 研究, 漢陽大 博論, 1993
22. , 韓國の日式住居に見る住文化の持續と變容, 東京大 博論, 1994
23. 金義龍, 1880年~1945年 韓國 官建築組織의 變遷過程 研究, 明知大 碩論, 1992
24. 金泰中, 舊韓末 度支部 建築所의 組織과 事業에 관한 研究, 釜山大 碩論, 1982
25. 박만규, 韓末 日帝의 鐵道敷設에 對하여, 서울大 碩論, 1982
26. 大野勝彦, 『都市型住宅』, 工業調查會, 1979
27. 都市住居研究會, 『異文化の葛藤と同化-韓國における「日式住宅」』, 建築資料研究社, 1996
28. 明治工業史 編纂委員會, 『明治工業史』, 社團法人 工學會, 1930
29. 木村德國, 方法論的序章,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19, 1958. 7.
30. , 明治時代の住宅改良と中廊下形住宅様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 21, 1959. 5.
31. , 大正時代の住宅改良と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18, 1958. 5.
32. , 昭和初期の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展開と融合,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20, 1958. 12.

33. , 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史的位罝,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1, 1959. 5
34. 武井豊治, 『古建築辭典』, 理工學社, 1994
35. 扇田新 外 9人, 『新建築學大系-7, 住居論』, 彰國社, 1987
36. 平井聖, 『圖說 日本住宅の歴史』, 學藝出版社, 1980
37. 太田博太郎 編, 『住宅近代史』, 雄山閣, 1969

A Study on the Implantation of the Japanese Style Official Residence before 1910

Ahn, Sung Ho
(Architect, TCA Architects & Planners)

Kim, Soon Il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e time of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style official residence played major role at the implantation of modern dwellings into Korea and its influences on Korean modern dwellings are distinguishable. This study focuses on the Japanese style official residence implanted into Korea before 1910.

Before 1910 Japanese civilians in Korea builded just a traditional Japanese dwellings at the Japanese settlement in the ports opened. But Japanese engineers engaged in governmental organization of construction in the Old-Korean Empire builded a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s as official residence.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 was an urban dwelling compromised between Japanese style and western style and distinguished by an outer-court type plan, Japanese entrance hall, central corridor and western style reception room.

It is certified that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 was implanted into Korea before 1910 and this was the first time an urban dwelling to be implanted and spread through the whole Korea.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 implanted into Korea took in On-Dol and transformed to Korea-Japanese eclectic style.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s implanted into Korea in the time of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makes function as a precedent of a modern urban dwelling to Korean and makes Korean dwellings transform from the rural inner court type into the urban outer court type.